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6. 22.(월)  
(사진 14:00 이후)

## 공공조달의 가치를 '차오르는 달'에 담다... 「2026 조달청 '일상 체감'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대상' 수상

- 국민들의 새로운 시선으로 일상과 연계된 공공조달의 가치 조명
- 영상, 웹툰, 이미지 부문 총 10개 수상작 발표

공공조달의 역할과 가치를 '차오르는 달'이라는 감성적인 상징으로 풀어낸 최원서 씨의 작품이 「2026 조달청 '일상 체감'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달청은 6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10개 팀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전은 '오늘을 지키고, 우리의 내일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평범한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한 공공조달의 중요성과 역할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참신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결과 영상, 이미지, 웹툰 부문에 걸쳐 총 45개의 참신하고 번뜩이는 작품이 접수되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개, 최우수상 3개, 우수상 6개로 총 1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최원서 씨의 영상 작품 「차오르는 달, 채워가는 조달」은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책임지는 공공조달의 든든한 가치를, 어둠을 밝히며 서서히 '차오르는 달'의 모습으로 아름답고 감성적인 은유로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깊은 공감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영상 부문 김우민 씨의 '오늘을 지키는 조달, 내일을 여는 이유' ▲이미지 부문 김기만 씨의 '24℃의 조달' ▲웹툰 부문 임평우 씨의 '조다운의 특별한 발견' 등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우수상에는 영상 부문의 임은수, 이연경 씨, 이미지 부문의 김준석, 최병렬 씨, 웹툰 부문의 장혁, 이동수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2026 조달청 '일상 체감'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수상작 >

수상	구분	수상자	수상작
대상(1개)	영상	최원서	차오르는 달, 채워가는 조달
최우수상 (3개)	영상	김우민	오늘을 지키는 조달, 내일을 여는 이유
	이미지	김기만	24°C의 조달
	웹툰	임평우	'조달온의 특별한 발견'
우수상 (6개)	영상	임은수	조달청이 역동적인 미래를 그려갑니다
		이연경	오늘 조달, 내일 맑음
	이미지	김준석	당연한 하루의 뒤편
		최병렬	깨끗한 대한민국을 조달합니다
	웹툰	장혁	운이 아니야
		이동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

대상을 차지한 최원서 씨는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공공조달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 <붙임> 「2026 조달청 '일상 체감'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대상작 : 차오르는 달, 채워가는 조달

강성민 차장은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공공조달의 이야기는 그 어떤 정책 홍보보다 깊은 울림이 있었다”며, “조달청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혁신과 도전을 통해 국민의 평범하지만 눈부신 일상을 더 낮게 바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조달청 유튜브 및 SNS 채널에 게재하여 공공조달의 가치를 알리는 국민 소통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과 장 박철웅 (042-724-7077)
		담당자	사무관 한명일 (042-724-7079)

**붙임**

# <대상작> 차오르는 달, 채워가는 조달

